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10강 복음과 중생 (빌 2:12~13, 겔 36:26~27)

1. “네가 거듭나야 한다(요 3:3)”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이다.”(웨인 그루덤)

중생을 확인하는 것들 :

- 1) 죄 용서의 확신이라든지
- 2) 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든지
- 3)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 4)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 5)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 싶고
- 6)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는 것과 같은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중생을 확인할 수 있다.

중생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 즉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2. 중생, 근본적인 변화: '새 마음을 주되'(겔 36:26~27)

중생은 본질, 본성의 변화다.

사람이 변한 것이다.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하는바, 그 마음이 바라는 성향 자체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다.

중생의 증거는 새 마음이다.

3. 중생한 신자와 율법의 관계 :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렘 31:3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율법과 중생한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게 하신다.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이다.

4. 중생한 신자 안에 죄성의 작용

거듭날 때 칭의로 말미암아 죄책의 문제(죄의 형벌)는 해결되지만 부패한 본성인 오염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중생으로 죄의 절대적 지배가 종식되지만 죄의 영향력은 잔존하는 것이다.

중생한 신자는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새로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 빌립보서 2:12~13은 중생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다.

5.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 을 우리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가신다.

6. 신자는 율법을 필요로 한다(딤후 3:16).

구약 율법에서 도덕법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선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율법의 계시적 측면 :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율법의 계시적 측면이다. 구약 율법에서 죄라고 한 것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죄다.

중생의 기적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권능 곧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알게 하셨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주셨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 그분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

성화 : 이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곧 성화다.

7.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는 불순종함으로 넘어질 때나 그렇지않을 때나, 좌절로 미끄러져 가거나 교만함으로 우쭐대지 않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로서 말이다.

8. 은혜, 너무나 큰 은혜! (고전 15:10)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 2:13).'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